

# 주거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김지혜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The effect of housing environment on the health of single-mothers

Ji-Hye Kim  
Dep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주거 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5년 한부모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주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건강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 중 채광, 난방, 소음 등과 같은 주거 성능이 충족되지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여성들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았다.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자가 보다는 공공 임대 거주하는 경우와 주거로 인한 과한 부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우울에는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만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자가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와 과도한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여성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주거개선서비스의 필요성과 주거실태조사, 주거 부채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공공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 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주거 환경, 한부모 여성, 주관적 건강, 우울, 주거권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housing environment on single mothers' health and to find out how to improve their health and housing environment.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Single-parents survey carried out b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When residential functions such as mining, heating, and noise are not fulfilled amo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ingle-mothers are more likely to feel unhealthy. Among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ing, people who live in public rental housing are more likely to feel unhealthy than those living in own house. And people who have excessive household debt are less healthy than those having no deb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housing environm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depression of single-mothers. Based on the results, the author suggested that housing improvement services, survey of housing conditions of single parents, provision of services considering household debt and improving residential conditions of public rentals houses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 Residential environment, Single-mothers, Subjective health, Depression, Residential Rights

Received 7 September 2017, Revised 10 Octo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Ji-Hye Kim  
(Dept. of Social welfare, Hyupsung University)  
Email: jhkim@uhs.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현대사회의 가족 형태 및 구조의 변화 속에서 한부모 가족은 우리 사회의 주요 가족 형태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한부모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8.6%에서 2015년 9.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부모로 살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특히 한부모 여성들은 홀로 자녀를 양육 하고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많은 한부모 여성들이 생계책임자로서의 역할과 가정을 돌보아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과중한 역할 부담으로 만성적 피로와 함께 무기력, 우울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1,2]. 또한 전 반적인 지원체계의 약화, 이중역할의 고충, 사회로부터의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 등으로 우울감이 증대하고 불안, 스트레스, 자존감의 상실, 사회적 고립감, 절망감, 소외감 [3]을 겪고 있다.

한부모 여성에게 건강은 빈곤의 선행조건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즉, 건강 상실은 노동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빈곤의 조건이 되면서도 경제적 결핍이 의료에 대한 접근을 제약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여 다시 건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4]. 한편, 건강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이기도 하다 [3]. 따라서 한부모 여성들에게도 건강은 행복한 삶의 주요한 전제 조건으로, 건강 수준이 높을수록 한부모 여성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5].

이처럼, 한부모 여성의 빈곤탈피와 자립,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파악하고 증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건강과 관련된 요인들 중 주거환경은 개인의 건강, 가족 관계, 심리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6,7]. 특히 주거의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은 개인의 신체·정신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데[8,9,10], 주거 면적과 구조, 성능, 기능, 시설 기준 충족 여부 등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2,13]. 또한 주거비용, 주거점유형태 등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징 역시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0].

그러나 한부모 여성들의 주거 환경과 안전성은 매우 열악하다. 이들의 삶을 어렵고 하고 빈곤으로 떨어뜨리

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바로 주거의 문제이다. 일반 가구에 비해 여성 한부모 가구는 자가 보다는 전세, 무보증임대, 무상주택, 보증부 월세, 월세 등 불안정한 주거 상황에 있다[1,14]. 또한 생활비와 교육비와 같은 고정적인 지출로 인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별도의 주택마련 자금이나 전세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에, 예상치 못한 전세나 월세비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져 빈곤과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3]. 빈곤과 주거의 불안정, 열악함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이 건강에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15].

이처럼 건강과 주거가 한부모의 삶에서 중요한 이슈이며, 서로의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의 주거 환경과 건강과의 관련성과 영향 요인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한부모의 삶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에 한번 씩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나 이들 간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부모 여성들의 주거 환경이 이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거 환경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은 한부모 여성의 빈곤 예방과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총체적 관점으로 사업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부모 여성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건강 증진 사업에서 주거 환경에 대한 개입의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 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한부모 여성의 주관적 건강 인식,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거 환경은(물리적 특성/사회경제적 특성) 한부모 여성의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주거환경은(물리적 특성/사회경제적 특성) 한부모 여성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 2. 선행연구 검토

### 2.1 주거와 건강

주거는 직, 간접적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개인의 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13]. 이는 다양한 인구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확인되었는데, 주거와 아동 발달과의 관계[6], 노인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 자존감, 우울과의 관련성[16,17], 임대아파트 거주 저소득층과 우울과의 관계[18],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주거최저기준, 주거의 사회경제적 요인 등이 거주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10,13,19,20]이 있다.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에 있어 두 가지 접근이 필요한데,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지위로서 주거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거의 물리적 환경은 주거 면적과 구조, 성능, 기능 등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특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다. 열 환경, 공기, 소음, 빛 환경과 같은 주거의 실내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11]. 습기, 소음, 환기, 먼지 등의 거주환경은 거주층, 소유형태, 주택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리 요인들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12]. 주거의 과밀도 건강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을 제시하면서, 최저주거기준(면적, 시설, 구조, 성능, 환경 기준)의 충족여부가 개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할수록 건강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으로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우울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주거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자가 소유와 같은 사회경제적 특성도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적 특성, 주거와 주변 환경의 물리적 중재 효과를 통제된 상황에서 주택의 자가 소유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자가 소유가 건강에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21,22]. 또한, 주거의 점유형태가 거주자의 불건강 인식과 만성질환 유병여부, 우울감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13]. 이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더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반영하는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 반지하 주택 유형에서 불건강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저소득계층은 열악한 환경오염에

노출됨으로써 일부 환경성 질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 주거 점유형태, 주택 규모와 같은 경제적 특성은 우울감 및 자존감과 같은 정신건강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24]. 주거의 사회경제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 또한 우울의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정신 건강에 부정적이다[10].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에도 임대보다는 자가인 경우에 긍정적인 의미를 미쳤다[25].

## 2.2 한부모 여성의 주거와 건강

한부모여성은 양부모여성에 비해 불건강 수준이 높으며, 건강불평등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부모 여성들은 생계의 부담과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으로 건강에 소홀하기 쉽다[1]. 이에 한부모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교육, 주거, 의료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배제를 경험함으로써[1,4,26], 건강상 취약한 대표 계층이 되고 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성별 건강 수준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는 부부가구에 비해 불건강 위험이 높았고, 이 중 한부모가 구 여성은 한부모가 구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실태와 건강상태 모두 매우 열악하고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성과 가구특성의 영향을 모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26]. 또한 가족해체에 따른 남녀의 건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가 육체적 건강이 가장 열악하였지만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여성 모두 육체적 건강이 열악하였다[28]. 2014년 여성가구의 절대적 빈곤율은 27.4%인데[29], 가구 총소득이나 직업 등에서 불리한 여건에 있어 의료이용의 요구는 높으나 이에 대한 자원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의료특성이 나타나고 있다[30].

한부모 여성들은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결혼 중인 여성보다 우울 위험이 높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더 많이 사용하며 정신 건강 전문가를 찾을 가능성도 높게 나타난다[31]. 사회적 지지망의 부재, 경제적인 어려움, 다중 역할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에서 노동기회의 상실과 성적 불평등으로 인해 우울과 불안, 열등감, 무기력, 체념,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다[31,32].

한편, 주거는 한부모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과도한 주거비는 생활비와 교육

비의 고정적인 지출 안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며, 주택 마련 자금이나 전세 비용을 미리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예상치 못한 전세나 월세비의 증가는 부채의 증가로 이어지고,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3]. 이와 같은 주거의 불안정성과 과부담은 장시간 노동을 해도 빚이 늘거나 제자리 상태에 처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33]. 주거문제는 취업에서의 불평등과 함께 빈곤을 대물림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34], 한부모 여성의 자립에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미혼모의 자립에 대한 연구에서도 주거는 개인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본인과 자녀의 심리사회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활 제반 조건이자 자립의 중요한 요건으로 강조되었다[2].

한부모 여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환경은 양부모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치안, 청소, 소음, 자연환경 등 안전과 쾌적함 관련 문항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35]. 또한 주거안정성, 주거비용, 주거쾌적성, 주거환경 전체에서 남성가구주 양부모가구의 주거상태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반면, 비혼1인가구와 여성한부모가구의 주거상태는 상당히 열악하였다[35]. 여성한부모의 주거는 아동과 함께 거주한다는 측면에서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고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아동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 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과 주거에서의 배제는 탈빈곤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데, 건강과 주거 차원에서 배제감이 높을수록 탈빈곤에 대한 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6]. 이처럼 건강과 주거는 인간의 기본권이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전제인 것이자, 탈빈곤 의지의 기반이 된다는 측면에서 한부모 연구에서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요인들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부모 여성의 주거 환경과 건강 수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 여성들에게 중요한 삶의 기반인 주거와 건강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서비스와 대안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 3. 연구 방법

#### 3.1 분석자료

본 연구는 [2015 전국한부모가족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한부모가족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2012년에 첫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5년도에 두번째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데이터에는 소득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지표, 전반적인 생활 실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뿐 아니라 건강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와 우울감에 관한 정보가 구축되어 있으며, 주거 형태 및 주거 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주거환경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2,552 가구 중 여성한부모만을 대상으로 1,669가구를 분석대상으로 한다.

#### 3.2 주요 변수

##### 3.2.1 건강

건강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주관적 건강 상태와 정신건강 모두를 포함하였다. 주관적인 건강 수준은 유병과 사망을 예측하는데 신뢰성과 정확성이 입증된 지표로 알려져 있다[26]. ‘평소에 귀하의 건강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우좋다/좋은 편이다’를 ‘건강함’으로 ‘나쁜편이다/매우나쁘다’를 ‘불건강’으로 이분화 하였다. 정신건강은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 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 등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에 ‘있다’ ‘없다’의 응답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에 우울감 여부로 구분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고, 이처럼 종속변수가 이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항 로지스틱 분석이 적절하다.

##### 3.2.2 주거환경

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환경 요인은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주거의 물리적 특성은 먼저 ‘최소주거면적’ 과 ‘주거 성능’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정부는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를 ‘최소주거면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4인가구의 경우 총 주거 면적은 43m<sup>2</sup>이고, 3개의 침실과 식사 겸 부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주택 면적은 조사하고 있으나 방의 개수 등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가구구성원 수 대비 총 주거면적을 계산하여, 최소주거면적기준에 충족하면 '최저주거면적 충족', 충족하지 않으면 '미충족'으로 구분하였다. 정부는 2011년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네 가지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과 '방음, 환기, 채광 난방 설비'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해일,홍수, 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과 같은 자연 재해'에서의 안전 충족여부이다. 본 조사에서는 '방음, 환기, 채광, 난방'에 대해서 별개 문항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의 한 영역인 '주거 성능'만을 변수에 활용하였고, 각 문항에서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주거 성능 미충족'으로 하여 '충족'과 '미충족'으로 구분하였다.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주거비 부담률' '주거소유 형태', '주거비 부채'를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거의 소유형태는 '자기집,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또는 사글세, 무상으로 가족/친지집에서, 무상으로 친구집에서, 공공임대(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 임대 등), 기타'로 구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와 '전세' '보증금부 월세와 사글세', '무상', '공공 임대'로 범주화하여 활용하였다.

주거비 과부담은 '소득대비 주거비의 비중'을 계산하여 이것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정의한다. 본 조사는 소득과 지출영역에 대한 월평균 지출액을 파악하고 있다. 소득은 가구의 월평균 소득, 주거비는 '집세, 난방비,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를 포함한다. '소득대비 주거비의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과부담'으로 구분하여 변수로 활용하였다. '주거부채여부'는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의 주된 이유가 주거로 인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였다.

### 3.2.3 통제변수

통제 변수로는 인구학적 특성인 '연령',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소득, 종사자지위를 포함하였다. 가구소득은 각 가구원 수의 제곱근으로 나눈 균등화 가치 분소득으로 전환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투입된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방법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Operational definition and measurement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s	Variable measurement
Dependent variables		Subjective Health status	Healthy (ref) / 'very good' 'good' unhealthy / 'very bad' 'bad'
		Depression Y/N	Yes (More than 2 weeks in the last year) No (ref)
Independent variables	Physical Characteristics	Minimum residential area (satisfied: ref)	Satisfaction of residential area by number of households
		Performance of housing (satisfied: ref)	Ventilation and mining / Heating condition / Sound insulation satisfied Yes or No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Housing ownership	Own(ref) / charter rent / free/ public rental
		Housing expenses (No overburden : ref)	More than 30% of 'Share of housing expenses to income' : overburden of Housing expenses
		Housing debt (None :ref)	In the case of debt, the main reason for the debt being borrowed is the housing debt.
		Residential location (Ground:ref)	ground Not ground : Underground, Half underground Rooftop
Control variables	Age	less 30s (ref) / 40s /over 50s	
	Education	Lower than middle school/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 College degree or higher(ref)	
	Occupational status	Regular workers(ref) / Temporary workers&Daily workers/self-employed&Unpaid work/unemployment	
	Household income equalization	Household income / Square root of the number of households	

### 3.2.4 분석방법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한부모 여성의 건강 증진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감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항 로지스틱 분석을 하였다. 먼저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모델 I)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특성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모델II)을 각각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동시에 투입하여 모든 변수가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모델III). 일반적 특성의 기술 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분석에는 SPSS 18.0을 사용하였다. 주요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절대값이 .7을 넘는 경우가 없었으며, 다중공선성의 위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 4. 연구 결과

##### 4.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 좋음 ’에 속하는 ‘ 매우 좋음 ’ 과 ‘ 좋은 편 ’이 각각 6.1%, 56.9%로 절반 이상인 63%가 건강하다고 인식하였다. ‘ 나쁜 편 ’은 32.2%, ‘ 매우 나쁨 ’은 4.8%로 불건강으로 인식하는 경우는 37%로 나타났다. 최근 2주 동안 우울감을 느낀 경우는 200명으로 12%이었으며, 우울감을 느끼지 않은 경우가 88%로 나타났다. 연령은 40대가 1,029명 (61.7%)로 가장 많았다. 학력은 중졸이상 고졸이하가 1082명, 64.8% 이었으며, 대졸이상도 470명 28.2%이었다. 종사자 지위는 상용직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임시직과 일용직이 32.1%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도 315명 18.9% 이었다. 가구 균등화 소득은 평균 97만원으로 나타났다. 주거 환경과 관련된 변수인 주거의 성능 충족 여부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868명 52%로 충족하는 경우(47.9%)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구성원 당 최저주거면적의 충족 여부는 매우 적은 수만이 (70명, 4.2%) 미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거 점유 형태는 월세와 사글세가 549명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가는 16.8%에 불과하였고 전세는 22.3%였다. 공공임대주택 형태는 247명 14.8%로 나타났다. 소득에 비해 주거비 지출이 과부담되는 경우를 분석한 결과, 85.3%가 소득에서 주거비가 30%를 넘지 않았다. 부채의 주된 이유가 주거비로 인한 경우는 300명으로 18%로 나타났으며 주거 보다는 다른 이유가 주된 경우는 82.0%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s

Variables	Contents	Case (N=1669)	Percentage
Subjective Health status	very good	101	6.1
	good	950	56.9
	bad	538	32.2
	very bad	80	4.8

Depression	yes	200	12
	no	1469	88
Age	less 30s	432	25.9
	40s	1029	61.7
	over 50s	208	12.5
Education	Lower than middle school	117	7.0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1082	64.8
	College degree or higher	470	28.2
Occupational status	Regular workers	626	37.5
	Temporary &Daily workers	536	32.1
	self-employed&Unpaid work	192	11.5
	unemployment	315	18.9
Household income equalization		97.1918 (mean)	
Performance of housing	satisfied	800	47.9
	not satisfied	868	52.0
Minimum residential area	satisfied	1560	93.5
	not satisfied	70	4.2
	missing	29	2.3
Housing ownership	Own	281	16.8
	charter	373	22.3
	rent	548	32.8
	free	201	12.0
	public rental	247	14.8
	etc	19	1.1
Housing expenses	not overburden	1423	85.3
	overburden	212	12.7
	missing	34	2.0
Housing debt	have	1369	82.0
	not have	300	18.0

##### 4.2 주거환경이 주관적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연령, 교육수준, 소득, 종사자지위를 통제하고 주거의 물리적 특성(모델 I)과 사회경제적 특성(모델 II)의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모든 변수들을 투입하여 주관적 불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모델 III)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물리적 특성이 불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모델 I), 주거 성능은 불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소주거면적기준 충족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주거 성능이 충족된 경우보다 미충족하는 경우가 불건강에 속할 확률이 1.35배 높았다. 이는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하여 분석한 김승연 외(2013)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연구 결과로 주거

환기, 채광 등의 성능이 건강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13]. 통제 변수의 영향은 30대보다는 40대와 50대 이상이 불건강에 속할 확률이 각각 1.69배, 2.79배 높아 연령이 많을수록 건강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대졸이상 보다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2.21배, 상용직 보다는 임시직/일용직(1.98배), 자영업(1.64배), 실업 상태가 (5.45배) 불건강에 속할 확률이 증가하였다. 실업상태는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인과 관계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소득이 1 증가할수록 건강은 1.01배 증가한다.

사회경제적 특성이 주관적 불건강에 미치는 영향(모델 II)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다는 월세와 사글세와 공공 임대인 경우가 각각 1 증가할수록 스스로를 불

건강한 것으로 인식할 확률이 1.45배와 1.75배 높았다. 부채의 주요 이유가 주거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스스로를 건강하지 않다고 인식할 확률이 1.37배 높았다. 유의미한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는 물리적 특성 모델과 동일하였다.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을 모두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주거 성능이 충족된 경우보다는 미충족한 상황이, 자가 소유보다는 공공임대 거주가,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각각 1 증가할수록 불건강에 속할 확률이 1.30배 1.65배, 1.35배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과부담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은 박정민 외(2015) 등의 연구와는 상반된 연구 결과였다[11]. 이러한 결과는 한부모 여성의 소득 대비 주거 과부담이 크지

<Table 3> The Effect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n Subjective Health Level

Variables		Dependent variables(Subjective Health status: unhealthy)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Exp (B)	p	B	Exp (B)	p	B	Exp (B)	p
Physical	Performance of H (satisfied ) not satisfied	.303	1.354	.009**				.269	1.309	.026*
	Minimum residential area(satisfied) not satisfied	-.129	.879	.638				-.065	.938	.820
Socioeconomic	Ownership (Own) chartered				-.203	.792	.246	-.322	.725	.116
	rent				.377	1.458	.047*	.315	1.370	.101
	free				.139	1.149	.551	.601	1.063	.795
	public rental				.561	1.752	.008**	.502	1.652	.019*
	R/L (ground) not ground				.369	1.446	.116	.293	1.341	.227
	H. Expense(none) over burden				.163	1.177	.358	.119	1.226	.507
	Housing debt(none) have				.316	1.372	.035*	.304	1.355	.046*
control	Age(less than 30s)									
	40s	.528	1.696	.000***	.599	1.820	.000***	.573	1.774	.000***
	50s~	1.029	2.798	.000***	1.117	3.055	.000***	1.068	2.910	.000***
	Education(College degree~) ~middle school	.796	2.217	.001**	.802	2.227	.001**	.768	2.156	.002**
	~high school graduate	.257	1.293	.060	.306	1.358	.026*	.250	1.285	.074
	Occupational status(Regular workers)									
	Temporary &Daily self-employed&Unpaid unemployment	.685	1.984	.000***	.638	1.893	.000***	.649	1.913	.000***
	Income	.498	1.646	.012*	1.468	1.597	.019*	.463	1.589	.023*
		1.696	5.452	.000***	1.737	5.682	.000***	1.742	5.711	.000***
		-.010	.990	.000***	-.008	.992	.000***	-.009	.991	.000***
상수항		-1.083			-1.4513			-1.436		
Nagelkerke's R <sup>2</sup>		.239			.266			.270		

\*p<.05 \*\*p<.01 \*\*\*<.001

않다거나 과부담이 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기보다는 이미 주거비용이 적게 드는 주거를 선택하여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좀 더 면밀한 분석과 해석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주거의 통풍, 채광, 소음, 난방과 같은 주거의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생활하는 경우, 여성 한부모들은 스스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느낄 확률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에서 자가의 경우보다 월세와 공공 임대인 경우 스스로 불건강하다고 인식할 확률이 높았다. 공공임대는 두 모델의 변수들을 투입했을 때도 그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의 안정성에는 의미가 있으나, 지원 금액이나 지역 등의 제한으로 노후 한 빌라

나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치안이나 안전이 위협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35] 이러한 점이 주관적 건강상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부채는 삶의 질, 정신 건강, 비만, 정서적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데, 주로 주거비로 인하여 부채가 있는 경우 여성 한부모도 스스로 불건강하다고 인식하는 확률이 높았다.

#### 4.3 주거환경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과정은 주관적 건강 수준과 동일하다. 주거환경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Effects of hous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Variables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Dependent variable (depression)		
		Model I			Model II			Model III		
		B	Exp (B)	p	B	Exp (B)	p	B	Exp (B)	p
Physical	Performance of H (satisfied) not satisfied	-.015	.985	.903				-.036	.965	.780
	Minimum residential area(satisfied) not satisfied	-.200	.508	.818				-.375	.688	.247
Socioeconomic	Ownership (Own)									
	chartered				.126	1.134	.571	.124	1.132	.585
	rent				.215	1.240	.317	.251	1.285	.252
	free				.293	1.340	.248	.281	1.325	.276
	public rental				.738	2.092	.001**	.752	1.121	.001**
	R/L (ground) not ground				.145	1.157	.556	1.129	1.229	.642
	H. Expense(none) over burden				.231	1.260	.203	.202	1.224	.270
Housing debt(none) have				.340	1.404	.031*	.331	1.393	.038*	
control	Age(less than 30s)									
	40s	-.243	1.696	.086	-.265	.768	.064	-.271	.762	.062
	50s~	-.085	2.798	.919	-.112	.894	.089	-.133	.875	.526
	Education(College degree~)									
	~middle school	.387	2.217	.113	.358	1.430	.143	.384	1.468	.124
	~high school graduate	-.056	1.293	.696	-.103	.902	.476	-.096	.909	.516
	Occupational status(Regular workers)									
	Temporary &Daily self-employed&Unpaid	.341	1.984	.033*	.355	1.397	.037*	.332	1.394	.041*
	unemployment	-.101	1.646	.674	-.085	.918	.720	-.081	.923	.516
	Income	1.229	5.452	.000***	1.252	3.497	.000***	1.234	3.434	.041*
	-.004	.990	.021*	-.002	.998	.202	-.003	.997	.740*	
상수항		-1.03			-1.4513			-1.448		
Nagelkerke's R <sup>2</sup>		.098			.120			.120		

\*p<.05 \*\*p<.01 \*\*\*<.001



먼저 물리적 특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없었다. 통제 변수는 상용직 보다는 임시직/일용직인 경우가 1 증가할수록, 실업인 경우가 1 증가할수록 우울을 느끼는 확률이 1.98배, 5.45배 증가하였다. 소득이 많을수록 우울감을 느낄 확률은 낮았다.

사회경제적 특성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모델 II)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가보다는 공공 임대인 경우가 우울감을 느낄 확률이 높았다. 즉 공공임대인 경우가 1 증가할수록 우울감은 2.09배 증가하였다.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우울할 확률이 1.40배 높았다.

## 5. 결론 및 논의

### 5.1 결론 요약

본 연구는 주거 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이들의 주거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분석함에 있어 주거 환경은 물리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구분하였고, 건강은 주관적 건강 수준과 우울감으로 측정하여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한부모 여성의 주거 환경과 건강 수준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 더 나아가 둘 간의 관련성을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와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의 물리적 특성이 한부모 여성의 불건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거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은 주거의 성능 충족 여부이었다. 이는 주거의 채광과 환기, 난방, 소음 상태와 같은 주거의 환경이 한부모 여성의 건강에 주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는 주거의 열 환경, 공기, 소음 및 환경과 같은 주거의 성능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8,13].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에서는 자가보다는 월세와 사글세, 공공 임대인 경우와 주거 부채가 있는 경우가 불건강 인식에 주요한 요인이었다. 자가 소유가 건강에 큰 영향력을 가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건강은 주거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결정짓는 선행조건이자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원인 관계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한다. 두 특성들을 모두 투입한 분석에서는 월세/사글세의 영향력만이 사라지고 기존 요인들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로 주거 환경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환경으로는 유의미한 요인이 없었다.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공공임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와 부채의 주된 이유가 주거비인 경우였다. 주거의 경제적 요소는 삶의 만족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37].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사회경제적 특성이 한부모 여성의 정신건강 부분과 좀 더 관련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주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립의 기반이 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개입은 한부모 여성의 건강을 증진시킴으로써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5.2 연구 제언 및 한계점

본 연구를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 여성의 주거 및 건강과 관련된 정책 및 서비스 등에 대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부모 여성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건강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주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주거개선서비스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도 구조안건, 설비, 마감 등의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고 있는데[7], 이러한 지원이 차상위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 한부모 가족 등 모두에게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또한 필요하다. 또한 도배와 같은 단순한 차원이 아닌 에너지 효율 등 근본적인 설비와 성능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주거환경에 대한 접근에서 공공임대 주택 제공 및 환경 개선에 대한 접근 뿐 아니라 주거 부채를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 한부모 여성들의 삶을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주거비의 부담 및 부채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부분이다. 주거비 지원 선정 및 결정과정에서 소득 뿐 아니라 한부모 최저주거기준과 주거비 부담, 부채 등을 보다 타당하게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주거로 인한 과도한 부채를 고려하여 이자율, 상환 방법 및 유예 기간 등에 배려를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거를 갖고 있다하더라도 많은 경우 부채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소득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의 자산 조사 시 주거 부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대출로 주거를 갖고 있는 경우 대출도 소득으로 산정되는 것은

주거 부담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세 번째로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함에 있어,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주거는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주요 정책 수단이며, 여성가구주들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여성가구주들의 경험에서는 주거환경의 열악성과 범죄피해 등 안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35]. 본 연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정신 건강에 부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주거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제시해준다. 지원 금액이나 지역 등에 제한이 있어 반지하 형태나 다세대 주택 등이 많고 다소 외진 곳에서 구하다 보니, 주거 환경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35]. 공공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고 쾌적하며 안전한 환경이 영위 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고려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네 번째로 한부모 여성들의 주거 실태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데이터를 축적하고 연구·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환경 개선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거권 차원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정하였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수행되는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서는 4가지의 주거 기준 중 한 영역만을 조사하고 있다. 한부모의 기본적인 주거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구의 특성과 구성원에 따른 시설기준과 성능, 구조, 환경 기준 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한 기초 자료를 축적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주거 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둘 간의 선후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간의 연구가 필요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기간과 건강 수준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데이터에서는 최저주거기준을 모두 파악하고 있지 않다. 개인 가구의 주택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한부모가족실태 조사가 정부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택의 구조와 성능 같은 물리적 조건들이 보다 면밀하게 파악될 수 있기를 바란다. 향후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종단 연구와 한부모 가족 유형, 성별 유형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D.Y. Song, J.H. Sung, "A study of the economic and emotional conditions of the working poor women". J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 25. pp.81-206, 2006.
- [2] J.H. Kim. S.H. Cho,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Self-Reliance of the Unmarried Mother". Journal of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Vol.18 No.2 pp. 149-180, 2016.
- [3] D.Y. Song. "A Study of Developing Comprehensive Policies for Low-Income Single-parent Households - Using a Concept of Social Exclu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No.54. pp. 259-310, 2003.
- [4] M.H. Shin. et al., "A Study on the Poverty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Exclusio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004.
- [5] M.S. Kim. Y.S. Na, "The Impact of Self-Control on the Low-Income Single Parents' Subjective Well-Being". Women Studies. Vol.71, pp. 75-105, 2006.
- [6] S.E. Lim. "Effects of Housing Poverty on Child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 Phd. Dissertation, 2010.
- [7] J.H. Kim, S.E. Kim. "Experience of the Housing Improvement Service Utilization". Journal of Contents association, Vol. 15. No. 1. pp. 171-184, 2014.
- [8] Ellaway, A., Macintyre, S, "Does housing tenure predict health in the UK because it exposes people to different levels of housing related hazards in the home or its surroundings?", Health & Place. Vol. 4, No.2, pp. 141-150, 1998.
- [9] Krieger, J., Higgins, D. L., "Housing and health: Time again for public health actio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92, No. 5, pp. 758-768, 2002.
- [10] J.M. Park, Y.C. Huh, W.C. Oh. S.K. Yoon, "Changes in Physical and Mental Health as a Function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Unaffordable Hous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7, No. 2, pp.137-159, 2015.
- [11] B.A. Kim, "Influence of Housing Environment on

- the Health.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Vol. 10, No. 4, pp. 215-221, 2003.
- [12] S.C. Cho, "Definition of environmental rights and environment of socio-economic weak". Environment and Life, Vol. 51, pp.117-132, 2007.
- [13] S.Y. Kim, S.R. Kim, J.S. Lee, "The Effect on Housing on Health". Health and Social Sciences, Vol. 34, pp.109-133, 2013.
- [14] D.Y. Song, Y.N. Kim, "A Study on Poverty in Female-Headed Household with Dependent Children in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No 22, pp.131-159, 2008.
- [15] Heidebrandt, E. "The health effects of work-based welfare". J Nurs Scholarship, Vol. 34, pp.363-368, 2002.
- [16] K.M. Nam, H.J. Nam, "The Influence of Older People's Satisfaction Factors of Housing Environment on Their Quality of Lif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 44, No. 3, pp. 395-420, 2013.
- [17] D.B. Kim, B.S. Yoo, "A Study o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Social Relationship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Case of Seoul Metropolitan Area". Journal of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33, No.1, pp.105-123, 2013.
- [18] S.R. Lee, "The Effects of the Income Residential Segregation on the Low Income Classes' Mental Health". Social Science Research. Vol.28, No.4, pp.277-302, 2012.
- [19] M.H. Kim, "A study on housing poverty and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sis, 2009.
- [20] J.H. Heo, Y.T. Cho, S.M. Kwon.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eprivations on Health". Korean Journal of Sociology. Vol. 44, No. 2, pp. 93-120, 2010.
- [21] Pollack, C. E., von dem Knesebeck, O., and Siegrist, J. "Housing and health in German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Vol. 58, No. 3, pp. 216-222, 2004.
- [22] S.H. Yim, H.S. Jang, "A Study on the Impact of Housing Environment of Residents Health - The Case of Incidence Rate of Environmental Disease". The environment of residential, Vol.16, No. 2, pp. 101-117, 2017.
- [23] J.M. Cho, "Environmental Policy for Low-income People in Urban Areas 2". Korea Environment Institution, pp. 1-500. 2008.
- [24] B.S. Choi, J.A. Park, "An Effect of Housing Environment on Depression and Self-esteem in Analyzing the 4th Wave of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in 2009".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ol. 23, No.5, pp. 75-86, 2012.
- [25] J.H. Lee, "A study on the determinants that affect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1, pp.503-514, 2015.
- [26] H.J. Shin, "A study on social exclusion factors influencing on poverty of female-headed households". Social Science Research, Vol.26, No.1, pp.315-342, 2010.
- [27] G.S. Jeon, H. Y. Lee. "The Influence of Family Structure and Sex on Health Statu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3, No.2, pp.162-173, 2009.
- [28] C.K. Park, J.R. Lee, "Differential Gender Effects of Family Disorganization on the Health and Quality of Lif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0, No.1, pp. 142-169, 2010.
- [29] C.H. Kang, "Analysis of health inequality among single-parent women". The Korea Association for Public Management, Vol. 30, No.4, pp.297-319, 2016.
- [30] H.J. Shin, "Qualitative Study on Single Mother's Experiences on a Healthcare Support Program".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7, pp. 311-321, 2013.
- [31] Y.J. Choi, "Mental Health Among Single Mothers: Risk Factors and Protective Facto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9, No.4, pp.1835-1850, 2008.
- [32] I.S. Kim,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 pp. 27-53, 1994.
- [33] J.H. Sung, "Divorced Single Mothers' Experience

- of Self-Independence".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5, pp. 137-152, 2017.
- [34] M.H. Lim, J.M Lim, "The Effects of Housing Expenditures on Health". Housing Studies Review. Vol.23, No.2, pp.31-51, 2015.
- [35] J.Y. Hwang, E.G. Kim, "Residential security awareness and policy demand of female household heads". Gender Review, Summer, pp.10-15, 2014.
- [36] H. M. Lee, W. C. Jeong, "Impact of a Sense of Social Exclusion on Will to Escape Poverty in Needy Single Mothers : with Priority Given to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Contents Association. Vol.16, No.5, pp. 760-771, 2016.
- [37] S.G. Hong, "The effects of multiphasic components of home environment on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3, pp.419-425, 2016.

김 지 혜(Kim, Ji Hye)



- 2002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2008년 2월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박사)
- 2017년 9월 ~ 현재 :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가족복지, 한부모 가족
- Mail : jhkim@uhs.ac.kr